

오전(1부, 노랑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7월 28일 (제126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거미를 제거하라

공사 관계로 기도원에 머물고 있을 때 성도가 찾아와 암이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명판사는 육법전서에 능하고, 명의를 맥을 짚기 전 침통에 손을 대지 않는 법. 나는 영적 판사요, 의사로서 그에게 물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혹시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한 적이 있습니까?”

“아~~~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여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아니요.”

나는 십계명의 열 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를 진단했다. 그랬더니 영적 판사로서 그의 죄명과 영적 의사로서 그의 병명이 나왔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처방했다.

“성전에 올라가 두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는 내가 선고한 대로, 내 처방전대로 기도원 대성전에 올라가 두 시간 넘게 기도하고 내려왔다. 얼굴이 달라 보였다. 그때야 나는 귀신을 쫓고 안수를 해줬다. 당연히 귀신이 드러났고,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갔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진단하라. 거미줄이 계속 생길 때는 원인이 되는 거미를 제거해야 하는 법,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영혼이 잘 돼야,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배설해버린 것이다. 나 역시도 그렇다.

처방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뭐 이래?’ 하면서 약을 먹지도, 치료를 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 그건 본인의 자유다. 그러나 결과 또한 본인의 책임일 터,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철저히 개선하여 영혼육이 잘 되자.

미래 세대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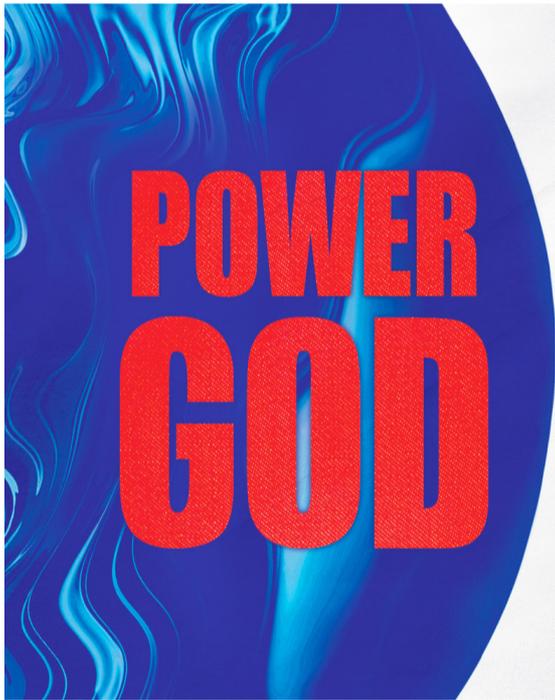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도 미래는 꿈꿔야 한다. 식민과 전쟁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면 서도 우리 젊은 세대는 광복을 꿈꿨고, 국가 재건의 희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왔다. 식민과 전쟁으로 초토화된 20세기 제3세계 국가 중에 이처럼 단시일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만을, 오늘의 성취만을 가지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계속 꿈꿔야 하고 계속 도전해야 한다. 그 에너지는 다름 아닌 우리 젊은 세대의 꿈과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젊은

개되고 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 전망 역시 불확실하다는 진단을 많이 한다. 그러나 언제 쉬운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꿋꿋이 지내온 역사만 보아도 절대 녹록치 않았다. 그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넘어온 노하우는 다름 아니다. 목사님이 해외집회에 나가셔서 목회자나 실업인 세미나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역시 ‘어떻게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 질문에 목사님은 항상 동일한 답을 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은 70여 년 전 전쟁으로 완

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와 사명이기에 수행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인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시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젊은이의 기백, 도전의식 아닌가.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시는 이유도 우리 젊은 세대가 이뤄갈 미래는 전쟁 없는 통일 대한민국에서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길 바라시는 것이다. 이 작고 분단된 나라에 그러한 동력과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제 26회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일시: 중·고등부 (7월 29일~31일)

대학·청년부 (8월 1일~3일)

장소: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

문의: 02-533-9191

세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교단 역시 단지 교단적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교단의 젊은 세대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해마다 총회장 목사님부터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총동원한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듯이 우리나라는 특별한 자원이 없다. 곧 땅을 파서 먹고 살 수 없는 나라다. 오로지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계를 공략해왔기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 21세기의 초반을 지나며 세계 질서가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각 분야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고, 곧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정치 질서가, 기후 위기가, 에너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

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고, 교회부터 새벽기도 운동을 전개하며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잘살아보자는 꿈과 의지를 갖고 전 세계로 나가자 존심을 버리고 차관을 들여오고, 자녀교육에 올인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결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우뚝 세우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께 붙들려 한 시대의 맥을 그을 수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인재로 성장해가야 한다. 국내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로 시야의 지평을 넓혀 도전하고 개척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이천 수련회를 통해 각자 세웠으면 한다. 목사님께서 노구를 이끌고 전 세

극복해야 한다. 분단을 극복해야 하고, 반도적 환경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해마다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올라서서 서는 것이고, 각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듯이, 우리 교단의 젊은이들 가운데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머리가 되는 인재들이 그 믿음의 싹을 틔우는 수련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2024 하계산상집회

8월 12일(월)~15일(목), 8월 19일(월)~22일(목)

장소: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갈5:1)



예수님은 영·혼·육의 구원자시다, 자유를 찾자!

저는 제가 번제물로 드러질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잘 살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걸 못 보겠습니다. 병든 걸 못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제 소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예수님은 이 소원을 이루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난을 청산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병에서 해방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시고, 죄악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찢리고 상함을 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사53:5).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와 가난과 병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청산하셨고, 대속(代贖)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福音)입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유케 된다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복음은 병에서 해방된다는 것이고, 죄인에게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잡초 뽑듯 귀신 쫓아 우리 천국생활하자

그런데 우리가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놈은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에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놈이란 바로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사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빌2:7~11).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이름 앞에 마귀와 귀신들도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니, 그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복과 건강과 행복과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원 아랫마을에 저와 동갑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과 농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우연히 그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습니다. 농사는 잡초와 해충과의 싸움이라고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잡초가 무성하고, 해충이 다 먹어 치운다고요. 저는 그 장로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농부는 잡초와 해충과 싸움의

연속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지속적인 귀신과의 싸움이어든요. 농부가 잡초 뽑는 일과 해충 잡는 일에 나태하면 논밭이 온통 잡초로 무성하고, 해충들이 열매를 입으며 다 갉아먹어 성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귀신은 잡초와 해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들을 매일 쫓지 않으면 우리 영·혼·육이 온통 잡초, 곧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할 것이고, 귀신들로 가득해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귀신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왜 이 교회는 늘 귀신 얘기만 하냐고요. 왜 귀신을 매일 쫓아야 하냐고요? 그건 농부에게 왜 매일 잡초를 뽑냐, 왜 매일 소독하냐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매일 잡초를 뽑고 소독을 해야 실한 열매를 거두듯, 우리도 매일 귀신을 내쫓아야 우리 삶에 실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가난과 병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신종 율법주의가 율법을 들이대며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더러는 주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3:20). 그러나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 하셨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3:1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이 루었다’고 하심은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를 내가 다 지불했으니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마5:17). 그래서 예수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저주나 정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상사가 먼저 나가면서 내 밥값을 이미 계산했는데, 그것을 못 믿고 식당 앞을 서성거리셔야 되겠습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는데 아직 지하땅굴에서 숨어 지내면 말이 됩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 남편에게 구속되어 자유하지 못하면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롬7:1~4)? 종의 멍에를 벗겨놓았는데, 스스로 다시 착고를 차는 바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계산하셨고,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유해도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복이 내 것이 됩니다.

원숭이가 망고를 쥔 손을 놓으면 호리병에서 손을 빼어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쥐고 있음으로 결국 사냥꾼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손을 펴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의식을 놓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식을 놓지 않으면 결국 귀신의 밥이 되고 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어떻게든 우리를 울무에 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들춰내며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너 간음했잖아.’, ‘너 예전에 도적질했지?’. ‘너 거짓말한 것 다 알아.’ 이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너는 죄인이야.’ 하결랑,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청산하셨어. 까불지 마. 당장 꺼져.’라고 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가게 되어 있단िया요.

율법시대는 가고 지금은 복음시대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9:2)고 하십니다. 죄를 사함으로 귀신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병에서 자유하지요. 그걸 서기관들이 믿을 리가 없지요. 죄사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눈에 보이는 일, 즉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9:12~13). 죄인인 우리, 병든 우리, 가난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가난과 저주와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의 일을 제어하시려고 공생애 기간 중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농부가 잡초와 해충을 제거하듯,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우리 영·혼·육이 풍성하고 자유케 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마음을 넓히라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박사는 '개인들의 삶은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때 이용하는 핵심적 은유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는 프레임(틀, 구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갖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것을 보고 와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라고 여기까지는 보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은 고착된 사고의 틀에 갇혀서 자신들이 체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들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며 스스로 좌절하고 탄식할 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난공불락의 성읍들과 철 병거를 탄 기졸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였기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

의 생각과 말대로 결과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앓드러졌으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고착된 사고의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학과 교리의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갔습니다. 고착된 사고는 분열을 낳고, 남을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바닷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가 됩시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 6:12~13).

상화평 목사

:: 성경에세이 ::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라

여보게!
신용불량자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네. 신용불량자라 하니까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못 갚아 얻은 불명예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자기 관리를 못 해서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잃은 자도 신용불량자라 생각하네.

사실 돈을 못 갚는 것도 자기 관리 실패에서 오는 것 아닐까? 사람들은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내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점검해서 돈을 빌려야지. 그리고 만일 갚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미리 채권자를 찾아가 빌드가 해야잖은가.

자기 관리는 자기 경영이고, 이는 곧 자기 점검이라네. 수시로 나를 점검하는 사람은 절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라는 말 듣는 것보다 '저 사람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야'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네. '좋아, 좋아'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 무골호인(無骨好人)은 욕이야.

정치거나 사업가나 목회자들도 자기 관리에 허술하고, 자기 경영에 나태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자를 누가 믿겠는가?
내가 사람들과 약속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네. 실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 괜히 못 지킬 약속을 했다가 신뢰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에 인색한 거라네. 우리 하나님은 32,500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진 말씀이 없지.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 아니겠나?

여보게!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순간이라네. 나무가 아름답다가 되기는 힘들지만, 아름답디나무가 잘리는 것은 순간이듯 말일세. 검은깨와 흰깨를 섞는 건 쉽지만 골라내는 건 어렵지. 그래서 내가 늘 '100-1=0'이라고 말하는 거네.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란 뜻이지. 요즘 마스크를 통해 그런 일례를 많이 듣고 보고 있지 않나.

신용이 불량한 자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함을 알고 꼭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나.

朋友

이거 정말 좋네!

나는 우리 교단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목사가 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적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하며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대안불식 필사양찬(對案不食 必思良饌)이라는 말이 있다. 밥상을 대하고도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좋은 반찬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심리가 이렇다. 성에 차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는 시대는 갔다. 그래서 '이거면 됐다'가 아니라 '이것이러야 된다'는 심정으로 상품개발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가 무엇인가? 그 개념을 그대로 풀면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제품 품질의 유지 및 향

상을 기하기 위한 관리다. 넓은 뜻으로 가장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 조치를 가리킨다.

나는 요새 우리 교회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교회 상품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 상품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한다. 품질관리 차원에서다.

주님도 품질관리 법을 이렇게 말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 1:5~7).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만물을 축복하라!

약 3년 전쯤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파주 임진강 주변의 논과 밭을 2천 평 가까이 사셨다. 매입 후, 땅을 축복해달라고 하셔서 그 땅에 가서 두 손 들고 축복기도를 해드렸다. 권사님의 남편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축복기도를 해드리고 처음으로 모내기를 하고 화초를 키우듯 정성스럽게 벼농사를 지으셨다. 드디어 첫해에 벼를 수확해 총회장 목사님과 이시대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쌀을 보내셨다. 그런데 연세 있으신 전도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이 쌀을 드시더니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찰지고 맛있는 밥은 처음이라며 모두 칭찬 일색이셨다. 결국에는 소문에 소문이 퍼져 지인들까지 예약을 하고 쌀이 완판되었다.

그다음 해에도 나는 그 땅에 가서 두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해드렸고, 그해에 수확한 쌀 역시 쌀을 도정하는 곳에서, 권사님 땅에서 수확한 쌀은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확실히 품질이 다르다는 평을 받으셨다고 한다. 예수 이름의 축복이 그 땅에 그대로 임한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당신의 시력이 2.0이 되라고 명령하고 축복하셨는데 정말

눈이 밝아지셨다는 간증을 하셨다. 나 또한 시력이 0.7, 0.9 정도였는데 영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라고 매일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안경점 시력 검사에서 양쪽 모두 2.0이 나왔다. 할렐루야!
매일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영상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면, 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드린다.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건강의 축복을, 또 가족 구원의 축복을, 헌신된 일꾼이 되기를, 거부(巨富)가 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매일 축복하며 명령하고 기도한다. 우리 문산교회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을 축복하고, 원근 각처에서 일꾼들이 몰려들기를, 이 교회에서 훌륭한 주의 종이 배출되기를, 선교사가 나오고, 물질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총회장 목사님과 이 교단과 교회를 위해 매일 밤 철야하는 기도자들이 생겨나기를 매일 기도한다.

만물은 들을 귀가 있고,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장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장순천 목사

머리가 썩으면 온몸이 병들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목회자 세미나

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눅 6:39). 누가 소경이라는 겁니까? 바로 지도자, 곧 목사가 소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경이라 칩시다. 내가 이 사람을 끌고 단상 아래로 내려간다면 어찌 될까요? 단상 턱을 보지 못하니 아마 둘 다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소경이 아니라 눈을 확실히 뜨고 있으니 이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이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면 예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고전4:20). 여러분이 오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고 퇴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오늘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무식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뿐 아니라 우리가 이끄는 양떼를 병들게 하고 마귀새끼한테 노략질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나타나도 이 나라는, 이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바요, 나 또한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모든 수고, 이 먼 나라에 수십 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서 시차에 허덕이며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하루 7시간 이상 기도 하고 나와 지금 3시간 가까이 외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기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베네수엘라(Venezuela) 집회의 마지막 일정을 목회자 세미나로 마치면서 장장 3시간 가까이 혼신을 다해 가르치셨다. 부디 목사님의 이 모든 수고가, 목사님이 다녀가신 자국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집회를 위해,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목사

웃자, 웃자, 웃자

1999년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승무원들은 대대적인 파업을 벌인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외치는 파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다 하면서 한 조용한 파업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 스마일(No Smile) 파업이었다. 파업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비행기 탑승 고객들을 맞이하였고, 모든 일을 빠짐없이 처리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회사 측에서는 이 파업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음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는 웃음이 없는, 미소가 없는 승무원으로 인해 항공사 매출이 급감한 것이었다. 이에 항공사는 승무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였고, 이들은 고객을 상대할 때 모두 미소가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응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노 스마일 파업'은 항공사 매출에 큰 악영향을 끼쳤지만 승무원들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는 승무원의 노동계약에도 '미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무원들은 친절의 상징인 웃음을 없앴으로써 사업주에게 항의한 것이었다. 결국 사측은 웃음이 없는 승무원들의 파업 행위에 두 손을 들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된다.

'미소는 전기보다 적은 양으로 더 많은 빛을 만들어낸다'고 프랑스 신부 아베 피에르는 말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웃음없는 가정은 물 없는 사막이요, 웃음없는 인생은 기름 없는 램프'라고 하시며,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이요, 가장 큰 스펙도 웃는 얼굴'이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도 거울을 보고 '하하하' 신나게 웃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가정과 교회, 직장이나 삶의 처소에서 내가 먼저 밝게 웃고 미소를 지어보자. 나의 웃음이, 나의 미소가 많은 인생의 순간에서 최고의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송현혜 생도

루이스(Luis) 목사의 간청으로 루이스 목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010년처럼 대형체육관에서 야심 차게 준비했던 목회자 세미나가 정부의 장소 대관 취소로 말미암아 좌절되자 이를 몹시 아쉽게 여긴 루이스 목사가 목사님께 요청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자는 목사님은 어떤 요청이 들어와도 다 수용하기로 마음 먹고 계셨던 듯하다. 목사님은 교회를 가득 메운 목회자들을 향하여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목회자면 지도자입니다. 내가 늘 지도자 교육에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지도자란 머리 아십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머리가 썩으면 온몸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머리가 썩었다? 나라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머리가 썩었다? 기업의 머리가 썩었다? 교회 담임목사의 머리가 썩었다? 결과는 자명합니다. 또한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동일하게 그 구성원들은 지도자 이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루이스 목사 이상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며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지식을 강조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

사람을 안전하게 단상 아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목사가 오리무중이니 그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판사가 육법전서를 죄다 펴고 있어야 제대로 판결할 수 있듯이, 목사는 성경 한 권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성도들을 천국까지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천국에 가서도 왕권을 누리는 권세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쫓혀 지금까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했던 일뿐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음 예수를 믿고 이 말씀에 흥분하여 즉시로 사업터에 나가 시력이 매우 안 좋은 직원을 예수 이름으로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나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내가 받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2천 년 전에

Good News

전문 산악인들이 즐겨 오르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곳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절경과 희귀한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르는 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군데군데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코스는 중간 정도

오르고 나면 거대한 바위 절벽들 사이로 겨우 사람 한 명조차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입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갈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에 쓰여 있는 것처럼 좁고 위험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구원의 길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은 좁고 찾는 사람이 적지만 들어가

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딴 길로 가려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